

중국, 중소형 LCD시장 1위 “추월”

BOE, 9인치 이하 LCD 5635만대 출하 ... 저가제품 공급 위주

중국 디스플레이(Display)산업의 발전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중국 BOE는 2013년 1/4분기 9인치 이하 중소형 LCD(Liquid Crystal Display) 시장에서 출하량 5635만대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중국 생산기업이 디스플레이 패널(Panel)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으로 타이완 이노룩스가 5525만대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샤프 4315만대, LG디스플레이 3718만대, 재팬디스플레이 3천477만대로 뒤를 이었다.

BOE는 2012년 1/4분기만 해도 2853만대로 7위에 그쳤으나 1년 동안 생산량이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저가 제품 공급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BOE가 생산하는 중소형 LCD 패널은 80% 정도가 백라이트(Backlight)와 구동칩을 붙이는 모듈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반제품인 셀(Cell) 상태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셀 제품은 모듈 공정을 거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해 저가제품 수요가 많은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PC,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등으로 쓰이는 중소형 LCD 시장은 앞으로 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타이완 생산기업들이 장악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반면, 매출 기준 시장은 중국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2013년 1/4분기 매출 기준으로 샤프가 14억달러를 기록해 1위에 올랐으며, LG디스플레이가 13억6000만달러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팬디스플레이는 10억8000만달러, 이노룩스 8억9000만달러, AU옵트로닉스 6억달러가 뒤를 이었으며, BOE는 3억3000만달러로 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매출 1-3위 기업들은 저온폴리실리콘(LTPS) 등 첨단 기술 등을 이용해 고해상도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중소형 패널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13년 1/4분기 중소형 LCD에서 출하량 2934만대로 7위, 매출 2억 5000만달러로 8위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7>